

From : Kimbyung

Date : September 16, 2010

Subject : FW : 빨래를 하십시오/이해인 수녀님

용서. 사랑. 감사. / 石泉.
Hanmail 에서 아래 "표시하기"를 클릭!



빨래를 하십시오 / 이해인

우울한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맑은 날이

소리내며 튕겨올리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진답니다

애인이 그리운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물 속에 흔들리는
그의 얼굴이
자꾸 웃을거예요

기도하기 힘든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몇 차례 빨래를 행구어내는
기다림의 순간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된답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힘든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비누가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를 맡으며
마음은 문득 넓어지고
그래서 행복할 거예요



빨래 / 이해인

오늘도 빨래를 한다

옷에 묻은 나의 체온을
찼었던 시간들을 흔들어 뺀다

비누 거품 속으로

말없이 사라지는 나의 어제여
물이 되어 일어서는 희다흰 설레임이여

다시 세레 받고
햇빛 속에 널리고 싶은

나의 혼을 꼭 짜서
헝구어 낸다



